

50년 뒤 우리는 안전할까... 미래서 본 세월호 참사

우주로 간 고래

박지음 | 교유서가 | 1만5000원

세월호 참사 10주 기. 그사이비슷한비극들을 얼마나 목도했는가. 10년 뒤, 아니 50년 뒤 미래의 우리 사회는 안전해졌을까? 장편소설 '우주로 간 고래'는 미래의 시간에서 세월호참사를 생각하고 있다. 참사, 지하철에서 비행기에서 배에서 버스에서, 백화점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참사의 기억을 안고 시간이 멈춘 채 짙은 안개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 소설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망자 0명' 뒤의 또 다른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곳'의 기억을 50년 뒤 우주로 옮겨놓은 작가의 상상력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반복될 것임을 단호하게 예언한다. 예외지 않는 꾸밈없는 문체로 그려낸 '우주로 간 고래'는 우리가 모두 가지고 태어난 인지상정, 보통의 마음을 끌어내 혐오와 편견의 시대에 온기를 더해준다.

50년 뒤 한국은 1년에 한번, 한 팀을 꾸려 행성여행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7년 전 행성여행 코스를 비행하던 우주선에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나 승객들과 승무원 대다수가 죽는 참사가 일어났다. 우주선은 지구로 돌아오는 데 3년이 걸렸고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16일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 신항면에서 열린 목포 기억식에서 유가족과 추모객 등이 진상 규명과 나건호 기자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해 1년을 헤매다 새안시(市) 항만에 놓였으나 다시 버려지듯 3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 녹슬 대로 녹슬 고철과 다름없는 우주선에서는 참사 원인의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진상 규명 집회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나 여론은 그들에게 이제 보내주어야 한다고 외치고 말한다.

칠십의 라한은 한국인 관리자로 해체공인 외국인 노동자 열 명을 데리고 폐우주

선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독거노인처럼 혼자 새안시에서 사는 라한은 50년 전 고향 섬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많은 또래들의 참사를 목도했다.

열다섯 살 신율이네도 이 참사로 가족을 잃었다. 신율은 라한이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우주선 참사로 언니를 잃었다. 우주공학 박사였던 예멘 출신의 신율 아버지는 행성 여행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동자로 지원했다가 그 행성에서 사망하고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신율의 언니는 아

버지의 무덤이라도 찾겠다며 계약직 직원으로 지원해 우주선을 탔다. 그리고 4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했다. 여전히 우주선 참사의 진상 규명 운동을 벌이고 있던 신율은 우연히 라한이 버린 노트를 주워 읽고 라한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것을 알게 된다.

소설에는 우주선 참사를 둘러싼 여러 피해자들의 사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 사연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한 그간의 세월을 되돌아보게 한다. 세

월호 참사로 딸을 잃고 '세월호특별법' 추진을 위해 46일동안 단식투쟁을 한 유민아빠 김영오 씨는 추천사를 통해 "별이 되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슬픔이 덜할 거라 생각했는데 10년의 슬픔이 쌓였다"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고백한다.

소설을 쓴 박지음 작가는 작가의 말을 통해 "10년 전, 그날 나는 무엇을 했나"고 생각한다. 그는 "10년이 지나도 딸이 죽었던 시간을 노란 방에서 반복하고 있는 사내도, 언니를 위해 46일을 굶은 아버지를 둔 소녀도, 눈치 보지 않고 그때 그 상처로 인해 아팠다고 말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고래 모양의 우주선에 태워 우주로, 은하수로, 보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박지음 작가는 진도에서 태어났다.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4년 '영남일보'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월간토마토 문학상 수상,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창작기금을 받았다. 소설집 『내바 강가에서 우리는』, 『관계의 온도』가 있으며, 기획 출간한 테마소설 『나, 거기 살아』, 『여행시절』, 『소방관을 부탁해』, 『쓰는 사람』을 함께 썼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조선 거쳐 대한민국까지, 쉽게 읽는 우리 역사 아슬아슬해도 괜찮아,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니까

교과서가 쉬워지는 이야기 한국사

: 조선-근현대

강태형 | 유아이북스 | 1만8000원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실린 명문처럼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옛 선조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눠보기를 권한다. 역사를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현직 교사가 쉽게 풀이해 주는 역사책이 유아이북스에서 출간됐다.

조선 왕조 500년부터 격동의 현대사까지 기나긴 시간을 학습하고 암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소설을 소설 요약본만으로 읽지 않듯 많은 전쟁과 분쟁의 역사를 그저 요약본으로만 공부한다면 흥미를 느낄 수 없다. 하지만 태초부터 시작해 순종으로 끝나는 조선의 기록과 외세의 침탈, 독립 그리고 전쟁과 분단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머리 속 깊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현직 초등교사이기도 한 저자 강태형은 <교과서가 쉬워지는 이야기 한국사: 조선-근현대>를 통해 복잡하게만 보이는 우리 역사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쉽게 풀어냈다. 27명 왕들의 즉위와 행정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이야기로 읽다 보면 시대적 사건이나 인물의 업적과 과오 등을 이해하기 편하고 조선사가 보다 가까이 느껴진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아픔, 광복과 한국전쟁, 분단이 이루어진 혼란스러운 20세기의 모습까지 한 권에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와 잘못 알고 있던 정보까지 바로잡아 주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명필 한석봉과 독립운동가 이봉창이 본래 일본을 좋아했다는 사실 등 교과서가 미처 신지 못한 이야기들은 역사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 책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역사를 어렵게만 생각하던 모든 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역사의 의미와 재미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역사라는 학문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비추는데 가치를 둔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조상의 빛난 얼은 오늘에 되살리고, 조상의 아픈 역사도 되살려 반면교사로 삼아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어렵던 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비추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윤준명 수습기자

선 위의 아이들 남예은 | 라임 | 1만3000원



"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보통의 아이들을 만나다." 한 번이라도 길을 잃고 방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을 주목해 보자. 성장통을 겪는 우리 주변 청소년들에게 다정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책이 라임에서 출간됐다. 어딘가에 성숙한 청소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민과 걱정을 가득 안고 살아간다. 길고 긴 혼란과 불안의 시기를 오로지 내한 몸으로 버텨내고 있을 보통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 '확신', '사랑' 같은 것들이 아닐까.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이는 비단 청소년만이 아니다.

이 책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

에게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줄 소설집이다.

책의 저자 남예은은 지금 청소년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고민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가족과의 갈등, 원치 않은 임신, 학교 폭력과 방관, 잘못된 선택 등 주변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는 평범한 아이들이 현실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깨닫고자 하는 이야기를 작품 속에 녹여냈다.

이 책에는 '나쁜 사랑'부터 '코르셋', '선 위의 아이들', '지하철 1호선'까지 총 네 편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첫 번째 작품 <나쁜 사랑>에는 가족의 해체를 결정한 부모님과 갈등을 맺다, 결국 '나는 나로 살아갈 거라'는 엄마를 존중하게 되는 소년 로운이 등장한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준다. '이 순간, 사랑이 다시 시작되려'하고 있

어 그저 기쁜 로운처럼, 현재 내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를 잘 돌보는 일이 아이들의 몫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표제작 <선 위의 아이들>에는 학교 폭력의 목격자이자 가해자로서 스스로를 가둔 열일곱 살 인우와, 가난으로 인해 차디찬 복도에 갇혀 지내는 여섯 살 정운이 등장한다. 정운을 애써 무시하던 인우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우를 구함으로써 서로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와 청소년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어른과 사회에 대해 고민해 보게 만든다.

작가는 말한다. 누구나 방황하면서 길을 찾는다고. 그 말은 '당신도 결국 길을 찾을 것'이라는 말과도 같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아이들'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길을 찾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나다운 수습기자

블러디메리가 없는 세상 최제훈 | 문학과지성사 | 1만7000원

2007년 문학과지성사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최제훈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 머지않아 도래할 우리의 일상을 과학적 정보와 상상력을 동원해 뒤집어 본다. 이 소설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 사회에서 상황을 극한으로 모는 최대 변수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치밀한 구성과 매끄러운 서사로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린다. 날카로운 주제 의식은 완벽에 가까운 균형감을 자랑해 '최제훈표 토피아'로 독자를 흡인한다.

순교자 공경 토티아보기 권영파 | 흐름출판사 | 2만5000원

초기 교회의 박해 과정과 순교자 공경의 다양한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탐구해 보자. 박해의 대상과 목적 등을 살피고 신앙성경에 나타난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통해 당대 논란이 된 교회의 대처 방식을 살펴본다. 로마 통치 시대의 국지적 박해와 배교자와 재입교를 둘러싼 논쟁을 지나 순교자 공경과 대중 신심을 관통한다. 저자는 작품을 통해 박해와 순교의 생생한 기록을 가진 한국 교회에도 '성지와 성지 순례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대 질문을 던진다.

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 브라이언 키팅 | 다산초당 | 1만8500원

"물리학자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가?" 9명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불확실한 삶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역설한다. 불가능한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 곧 나의 무지를 마주하는 일이다. 작품 속엔 '바보가 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편견을 벗겨내고 질문을 해체한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건 물리학자들의 핵심적 동력이 된다. 멀리 보기 위해 발돋움하고 걸음을 내딛는 인간만의 용기와 지혜를 직관적으로 와닿게 한다.

